
생명과 생태, 그리고 인간중심주의: 아르네 네스의 심층생태론에 대한 머레이 북친의 비판 재고찰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 환경관리론과 인간중심주의

환경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에 와서이다. 그 기폭제가 된 사건은 1962년에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저술한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의 출판이다.¹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책에서 카슨은 ‘해충’을 죽이기 위해 뿌린 DDT와 같은 살충제가 공기나 물 혹은 흙에 퍼져 그 살충제에 노출된 생물체의 몸속으로 점점 농축되고,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의 생물체도 치명적인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Carson, 1962). 이 책의 출간 이듬해인 1963년에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위원회가 ‘농약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카슨 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며, 미국의 많은 주 의회가 유기염소계 농약 사용 규제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1969년에 미국 정부는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에 제출된 로마클럽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를 위시하여 적잖은 전문가 집단의 보고서들이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물과 공기와 땅의 오염,

1. Sessions, George(1995). *Deep Ec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Boston & London: Shambhala, p. x. “1960년대에 시작된 생태 혁명은 1962년도에 출판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기인한다.”

기후 변화와 그 파급 효과 등 생태적 위기를 경고해 왔다. 이와 아울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민간에서도 다양한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해 왔다. 1970년 4월 22일에 미국 전역에서 2,000만 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Earth Day)'로 제정하여 환경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1972년에는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개최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환경위기에 처한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전지구인의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은 그 생활의 존엄과 복지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환경권이 선언되어 있다(박덕영, 2010, 3-12).

그런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개발과 입법화 시도,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등의 노력은 생태론 가운데 '환경관리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는 여전히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생태환경의 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배후에는 인간이 오염되지 않은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큰 동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간이 지속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환경관리론' 관점에서는 자연이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대표적인 사상이 '심층생태론(deep ecology)'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개발과 간섭이 기후 변화와 같은 심각한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상황에서 그 위기의 근저에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생태중심주의'를 주창한 심층생태론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그와 동시에 심층생태론에 대한 반격도 거세다. 심층생태론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행하는 진영은 사회생태론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심층생태론의 주된 개념인 ‘생물평등주의’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사회생태론 진영의 비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심층생태론을 반(反)인간주의로 규정하는 사회생태론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주장의 설득력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심층생태론: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생물평등주의로

심층생태론 창시자인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 1912-2009)는 1972년 개최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단순히 “오염과 자연 고갈에 맞서 싸우고 선진국 주민들의 건강과 풍요를 보존”하는 일에 몰두하는 운동을 ‘표상적인(shallow) 생태운동’이라 규정하고, 이와 대비되는 ‘심층적인(deep) 생태운동’을 주창하였다. 새로운 생태운동을 주창하는 네스는 ‘환경 속의 인간(human-in-environment)’ 이미지를 거부하고 ‘관계적인 전체장(場) 이미지(relational, total-field image)’를 선호함을 밝히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명권(生命圈)의 그물망 또는 내재적 관계의 장(場)에 속한 매듭들”로 규정한다(Naess, 1995a, 3). 즉 그는 인간이 생태계 구성원 가운데 가장 우월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라는 그물망을 이루는 하나의 매듭에 불과한 존재이며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네스는 심층생태운동이 ‘원칙상 생물평등주의(biospherical egalitarianism)’를 지향함을 천명한다. 이로써 그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생명체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볼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네스가 ‘원칙상(in principle)’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은 생물을 “죽이고, 약탈하고, 억압하는 것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생태계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과 유형에서 깊은 외경심과 존경심”을 품게 된다고 말하며, “생존하고 번성할

동등한 권리는 생태계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명백한 가치 공리”라고 주장한다(Naess, 1995a, 4). 인간중심주의는 생존하고 번성할 권리를 인간에게만 부여해왔다고 판단하는 네스는 인간 이외의 타생명체에게도 생존하고 번성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인간이 타생명체와의 긴밀한 동반관계를 무시하고 ‘주인-노예의 역할 관계’만을 공고히 하려한 시도에 대해 비판한다.

인간을 자연과 분리시켜 자연보다 우위에 놓인 존재로 간주하고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아르네 네스는 인간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Nature)에 속한, 자연을 위한, 자연의 존재(Naess, 1995b, 14)”로 간주한다. 그는 인간이 동료 인간이나 인간 사회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는 더 큰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동일시(identify)한다. 네스는 ‘생태적 자기(ecological self)’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에 의하면 “한 사람의 생태적 자기는 그 사람이 동일시하는 대상(Naess, 1995b, 15)”이다. 그는 그러한 동일시의 한 사례를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한다.

“나는 구식 현미경으로 서로 다른 화학물질 두 방울이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탁자 위를 다니고 있던 나그네쥐에 붙어살던 벼룩 한 마리가 산성의 그 화학물질 한가운데 뛰어 들고 말았다. 벼룩을 구해낸다는 건 불가능했다. 벼룩이 그 상태로 죽어가는 데는 몇 분이 걸렸다. 벼룩은 격렬하게 발버둥 쳤다. 나는 자연스레 고통스런 동정과 공감을 느꼈다. 그러나 공감 자체가 기본적인 건 아니었다. 기본적인 건 오히려 ‘벼룩에게서 나 자신을 본다’는 동일시 과정이었다.” (Naess, 1995b, 15-16)

네스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된 지혜를 지칭하기 위해 ‘생태지혜(ecosophy)’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용어는 생태학(ecology)과

철학(philosophy)의 합성어로 ‘생태적 조화 혹은 평형의 철학(a philosophy of ecological harmony or equilibrium)’을 의미한다. 그는 ‘생태지혜’가 단순히 공해, 자원, 인구와 같은 ‘사실들(facts)’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규범, 규칙, 공준(公準), 가치 우선순위를 망라하는 것임을 밝힌다(Naess, 1995a, 8). 네스에게 심층생태철학은 바로 이 ‘생태지혜’이다. 네스에 의하면 생태지혜자(ecosopher)는 “보살핌, 존경심, 책임감, 앎”의 관념을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Naess, 1995b, 25).

네스는 카를 융(C. G. Jung)과 마찬가지로 자기(Self)와 자아(ego)를 구분한다. 네스에게 ‘자아’가 ‘좁은 의미의 자신(narrow self)’이라면, ‘넓은 자기(wider Self)’는 산스크리트어 ‘아트만(Atman)’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포함되어 있는 ‘궁극적인 혹은 보편적인 자기(supreme or universal Self)’이다(Naess, 1995b, 22). 서구에서는 데카르트 이래 인간 혹은 인간 정신과 외부 세계를 본질적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의 전통을 지녀왔다. 네스는 이러한 이원론을 버리고 좁은 나를 벗어나 더 큰 자기인 ‘보편적인 자기’를 향해 시야를 넓힐 것을 권고한다. 이 큰 자기(Self)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 형태를 망라”한다(Naess, 1995c, 80).

그리고 그는 융의 용어인 ‘자기실현(self realization, Self realization)²이’란 개념도 사용한다. 네스에게 자기실현은 자기 존재의 잠재성을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자기실현을 심화한다는 것은 자기를 더 넓고 깊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타인을 포함하는 동일화를 통해 (‘좁은 나’를 넘어) 더 큰 자기실현에 도달하며,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단계에 이른다. 네스에 의하면, 우리는 ‘타자’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타자의 자기실현

2. 네스는 “Self-realization, An Ecological Approach to Being in the World”에서 네스는 ‘self realization’으로 사용한 내용을 다른 글(“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에서는 ‘Self realization’로 표기한다. 이후 심층생태론 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Self realization’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방해를 받으면 우리 자신의 자기실현도 방해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 뿐 아니라 타자도 살 수 있도록 해야(Live and let live!)” 한다(Naess, 1995b, 14). 네스의 ‘자기’는 온 인류를 넘어 모든 자연적 존재(동식물과 지구 전체)로까지 확대되며, 이 모든 존재를 나를 존중하듯이 대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자기실현’이다.

그는 이러한 ‘넓은 자기’를 통해 모든 생물은 밀접히 연결되고, 이 친연성에 따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생태적인 ‘참 나’를 통해 자신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자유로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김으로써 우리의 행동은 자연히 환경윤리를 따르게 된다고 주장한다(Naess, 1995b, 29, 38). 네스에 의하면, “생태적 자기가 실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행동은 환경윤리의 엄격한 규범에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따르기 마련이다(Naess, 1995b, 26).”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아르네 네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너온 세계관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 생활방식, 사회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네 네스는 조지 세션즈(George Sessions)와 함께 심층 생태론의 8가지 기본 강령을 제시한다(Devall, 70).³

1. 지구상에 있는 인간 및 인간 이외 생명체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 가치는 인간 이외의 세계가 인간의 목적에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2.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3.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줄일 권리가 없다.

3. 네스와 세션즈는 ‘8가지 강령’을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조금씩 수정하였다.

4. 인간 생명과 문화의 번영은 실질적으로 더 적은 인구와 양립한다. 비인간 생명체의 번영을 위해서도 현재보다 더 적은 수의 인구가 요구된다.
5. 오늘날 인간 이외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너무 지나치며, 그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6. 따라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경제, 기술, 이데올로기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로 도달하는 상태는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를 지닐 것이다.
7.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더 높은 생활수준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질을 음미하는 것(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상황 속에 거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거대함과 위대함의 차이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8. 위의 조항들에 동의하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무를 지닌다(Naess, 1995b, 14).

아르네 네스의 사상은 1970년대 초반에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내에서만 회자되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의 철학자들인 빌 드볼(Bill Devall)과 조지 세션즈,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물리학자로서 동양 사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철학자 워릭 폭스(Warwick Fox) 등에 의해 계승 발전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심층생태론에 영향을 받은 급진적 환경보호 단체인 '어스 퍼스트(Earth First)'의 활동도 심층생태론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였다.

III. 사회생태론: 생물평등주의는 반휴머니즘

심층생태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의 거센

도전을 받는다. 심층생태론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행한 대표적인 인물은 사회생태론 창시자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일 것이다. 북친은 심층생태론이 부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신좌파가 몰락하면서 이어진 직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관념을 선호하는 이념적 풍토라고 지적한다(북친, 150). 신좌파의 몰락과 더불어 ‘뉴에이지(new age)’의 반문화적 신비주의가 폭발적으로 유행했듯이, 뉴에이지 문화에 이어 심층생태론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북친은 심층생태론이 신비주의 혹은 반(反)합리주의와 결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反)인간주의 혹은 인간 혐오주의와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북친은 네스가 창안하여 그 후계자들이 계승한 ‘자기’ 개념과 ‘자기실현’ 개념에 대해 비판한다(북친, 161). 북친은 심층생태론 진영이 근대 서구가 형성한 자아관을 버리고 ‘유기적 전체를 뜻하는 큰 자아 속의 자아’ 안에서 개인이 소멸되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자아 개념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한다. 북친은 심층생태론의 그런 자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전체 군주와 귀족에 종속된 자아라고 규정하고, 바로 권력자들이야말로 ‘자연 질서’, ‘자연적 힘’, ‘신성하고 우주적인 권능’이라는 명분 아래 민중들(농민, 장인, 노예)의 향겨 정신과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고갈시키는 이데올로기를 펼쳐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심층생태론자들의 ‘자아’ 개념은 ‘자기 포기적인 개인’ 개념에 불과하며, ‘큰 자아 속의 자아’는 자기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품성을 함께 잃어버린 것이며, 그들의 ‘자기실현’은 오히려 ‘자기말살’이라고 비판한다.

북친이 심층생태론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바는 ‘생명 중심적 평등’ 사상이다. 심층생태론 주창자들은 인간의 생명 가치와 타생물의 생명 가치를 원칙상 동일시하는데, 북친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평등’에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인간의 생명과 타생물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북친에 의하면 네스와 그 후계자들(특히 드볼과 세션즈)의 생물 평등주의 혹은 생물 중심주의는 지지될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이외 존재 사이의 존재론적 구분은 매우 실제적이기 때문이다(북친, 165).

북친에 의하면 진화의 산물인 인간만이 진화라 불리는 현상이 있음을 알고, 오직 인간만이 죽음이 현실임을 알고, 오직 인간만이 자기실현이니 생명중심적 평등이니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으며, 오직 인간만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일반화하고 복잡한 테크놀로지를 창조하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엄청난 특성과 위업을 단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의 정도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북친, 165). 북친에게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임에 분명하다. 이 때 인간의 우월성은 인간이 “다른 종들의 지배자 또는 주인”이라기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뛰어난, 비범한” 존재라는 의미에서이다(북친, 167).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타생물의 평등을 주장하기까지 하며,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고 북친은 주장한다(북친, 167-169).

북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층생태론에는 반(反)인간주의적이며 인간혐오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 점에서 그의 비판의 주된 대상은 ‘어스 퍼스트(Earth First)’의 창설자이자 주도자인 데이브 포먼(Dave Foreman)이다. 1986년 호주의 잡지 『심플리 리빙』(*Simply Living*)에 발표된 포먼과 심층생태론 사상가인 드볼의 인터뷰에서 “심층생태론이 어스 퍼스트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는 포먼의 말과 함께 드볼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 서문을 북친은 소개한다. “포먼은 꿈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뮤어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뮤어는 백 년 전에 만일 꿈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자기는 꿈의 편을 들어 싸우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고 썼다. 포먼은 이렇게 말한다. ‘바로 그날이 왔다. 나는 꿈의 군대에 입대하련다(북친, 174).’”

북친은 이어서 “인구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드볼의 질문에 대한 포먼의 대답을 소개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에디오피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길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며, 최선의 길은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서 그곳의 사람들이 그대로 굶게 놓아두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끄적거리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안이라고는 에디오피아

로 가서 반죽음 상태에 처해 절대로 명을 다할 수 없을 어린이들을 구하는 것 뿐이다. 이 경우에 그들의 발전은 정지될 것이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다(북친, 174).” 북친은 이러한 포먼의 말을 가혹한 인간혐오적 입장이라 비판한다.

V. 심층생태론은 반휴머니즘인가?

드블과 가진 포먼의 인터뷰 내용은 심층생태론 진영 내에서도 전적인 공감을 받지 못했으며, 후일 포먼도 그 인터뷰에서 표명한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다. 심층생태론자 위익 폭스는 북친이 심층생태론을 인간혐오주의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폭스에 의하면, 심층생태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결코 ‘인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 현재까지 서양의 철학, 사회, 정치의 전통에서 지배적 이념으로 군림해온 ‘인간중심적 사고’이다. 폭스는 심층생태론이 결코 인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혐오주의에 동조하는 것도 아님을 천명한다(Fox, 279). 폭스는 북친의 관점이 심층생태론의 주된 임무인 ‘인간중심성(humans-centeredness) 비판’과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반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인간혐오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인간혐오의 오류(the fallacy of misplaced misanthropy)”라고 비판한다(Fox, 280).

심층생태론자들은 인간중심주의 비판과 생물 평등주의 옹호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일치를 보이지만, 인간과 타생명체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 문제에서 ‘Earth First’의 포먼이 과격한 입장을 대변한다면, 아르네 네스는 온건한 입장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스는 ‘생물 평등주의를 지향하되, ‘원칙상’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그는 생물을 “죽이고, 약탈하고, 억압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층생태론의 8가지 기본 강령 가운데

세 번째 강령에서 “인간에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줄일 권리가 없다.”라고 표명할 때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인 점 역시 ‘생물 평등주의’라는 이상을 제시하되 인간의 생존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아르네 네스는 심층생태론이 인간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 채 자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 생존의 불가피한 상황 앞에서 그는 현실을 고려한 관점을 표명한다. 가령 그는 아프리카에서 ‘세계야생동물기금’이라는 단체가 어떤 부족민들에게 근방에 있는 특정 종의 새알을 새둥지에서 전부 가져가는 대신 하나의 새둥지에서 한 개의 알만 가져갈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 제안은 부족민들도 생존에 필요한 새알을 얻고 새들도 멸종당하지 않기에 새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네스는 간주했다(네스, 2014, 286). 또한 네스는 에스키모인들이 고래 사냥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들이 고래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부자나라들이 하듯 나머지는 파는 것은 부정적으로 간주하지만, 그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고래 사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더 큰 문제는 ‘문명인’들이 문명화된 방법으로 자행하는 대량 포경이며, 우리는 이를 감시해야 한다고 네스는 주장한다(네스, 2014, 281-283). 그리고 그는 굶어 죽어가는 아기에게 먹을거리를 주기 위해 어떤 동물종의 마지막 개체를 죽이거나 열대 우림의 마지막 구역을 태우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범죄라고 보았다(네스, 2014, 288). 이러한 네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를 인간혐오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북친은 심층생태론의 자아관, ‘자기실현’, ‘생물평등주의’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근대 서구가 발전시켜온 이성,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인간중심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성을 배제한 근대 서구의 이성, 개체를 강조하는 근대적 자아, 그리고 인간중심주의의 한계가 노정되고 그에 대한 극복이 과제가 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심층생태론에 대한 북친의 비판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친이 생태 위기를 ‘인간중심주의’ 같은 세계관적 원인보다 사회 정치적 원인에 더 강조점을 둘 때, 그 주장은 좀더 설득력이 있는 견해로 다가온다. 북친은 『자유생태론』(*The Ecology of Freedom*)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개념은 인간에 의한 실제적인 인간의 지배로부터 생겨난다(Bookchin, 1982, 1).”고 주장한다. 그의 관점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를 극복하는 것이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를 극복하는 첫 단계이다. 그리고 생태 문제에 대한 이러한 사회 정치적 접근은 북친의 사회생태론 뿐 아니라 에코페미니즘과 포스트콜로니얼 생태론의 심층생태론 비판에서도 공유하는 바이다.

환경 위기의 원인이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에코페미니즘 주창자들은 오염,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등의 생태 문제를 남성 중심 문화의 산물로 파악한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며,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극복 없이는 생태 위기의 극복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⁴

한편 포스트콜로니얼 생태론 진영에서는 백인과 유색인 사이의 평등이 인간과 타생물체 사이의 평등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생태보다 인종과 지역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희선, 59). 제3세계 포스트콜로니얼 생태론자들은 심층생태론이 제1세계 인간과 제3세계 인간

4.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Mies, Maria & Shiva, Vandana(1993). *Ecofeminism*, London: Black Rose Books.

사이의 불평등 문제는 도외시한 채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우선시하는 백인 우위의 생태론이라고 비판한다(김희선, 65).

북친의 사회생태론, 에코페미니즘, 그리고 포스트콜로니얼 생태론의 공통적인 비판점은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사상이 과거 제국주의 사상이 이어 받아 경제적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제1세계가 제3세계를 착취하는 현실이다. 과거에는 서양의 제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지를 짓밟고 자원을 수탈하고 인권을 유린해왔다면, 현대에는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 민중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자유와 권한이 막강해지는 데 비례하여 토착민들은 더욱 더 약탈당하고 피해한 삶을 살게 된다. 만일 심층생태학의 생태중심주의나 생물평등주의가 이러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실제로 한다면 이 점은 충분히 재고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심층생태학, 사회생태론, 에코페미니즘, 그리고 포스트콜로니얼 생태론의 공통점은 강자에 대한 견제와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사회생태론, 에코페미니즘, 포스트콜로니얼 생태론이 자본주의에 의한 제3세계 민중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비판한다면, 심층생태학은 인간에 의한 인간 외의 생명권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비판한다. 따라서 생태론 사이의 차이에 더 초점을 두어 서로 비판하는 데 힘을 분산하기보다, 상호간의 공통점에 더 집중하여 억압당하고 핍박받는 인간과 동식물 모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생과 공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생과 공존의 정신은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참고문헌

- 김희선(2016). 「저지대의 생태학: 제국의 비가시적 느린 폭력의 재현」, 『영미문화』 16(2), 47-70쪽.
- 박덕영(2010). 『국제 환경 조약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세창출판사.
- 머레이 북친(2002), 『휴머니즘의 옹호. 반인간주의, 신비주의, 원시주의를 넘어서』, 구승희 옮김, 믿음사.
- 아르네 네스 & 데이비드 로텐버그(1993). *Is It Painful to Think?: Conversations with Arne Naess*, 『생각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요?』, 낮은산, 2014.
- Bookchin, Murray(1982). *The Ecology of Freedom*. Palo Alto: Cheshire Books.
- Carson, Rachel(1962). *Silent Spr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ed.) (1985). *Deep Ecology*. Salt Lake City: Gibbs M. Smith.
- Drengson, A. & Inoue, Y. (ed.) (1995). *The Deep Ecology Movement: An Introductory Anthology*. Berkeley: North Atlantic Publishers.
- Fox, Warwick(1995). "The Deep Ecology-Ecofeminism Debate and Its Parallels," Sessions, George. (ed.) *Deep Ec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Boston & London: Shambhala. 269-289.
- Mies, Maria & Shiva, Vandana(1993). *Ecofeminism*, London: Black Rose Books.
- Naess, Arne(1995a).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in Drengson, A. and Inoue, Y. (ed.). *The Deep Ecology Movement: An Introductory Anthology*. Berkeley: North Atlantic Publishers. 3-9.
- _____(1995b). "Self-realization. An Ecological Approach to Being in the World", in Drengson, A. and Inoue, Y. (ed.). *The Deep Ecology Movement: An Introductory Anthology*. Berkeley: North Atlantic Publishers. 13-30.
- _____(1995c).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in Sessions, George. (ed.) *Deep Ec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Boston & London: Shambhala. 64-84.

국문초록

자연이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인 기존의 생태론에 내재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대표적인 사상이 아르네 네스가 주창한 ‘심층생태론(deep ecology)’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개발과 간섭이 기후 변화와 같은 심각한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상황에서 그 위기의 근저에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생태중심주의’를 주창한 심층생태론이 점점 확산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반격도 거세진다. 심층생태론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행하는 진영은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론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심층생태론의 주된 개념인 ‘생물평등주의’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사회생태론 진영의 비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심층생태론을 반(反)인간주의로 규정한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론 견해를 소개하고, 그 주장의 설득력 여부를 검토한다. 우리는 위익 폭스를 따라, 북친의 견해가 “부적절한 인간혐오의 오류(the fallacy of misplaced misanthropy)”라고 규정하고, 심층생태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아르네 네스의 관점을 인간혐오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대에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 민중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 위기를 ‘인간중심주의’ 같은 세계관적 원인보다 사회 정치적 원인에 더 강조점을 두는 사회생태론의 견해는 존중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필자는 생태론 사이의 차이에 더 초점을 두어 서로 비판하는 데 힘을 분산하기보다, 상호간의 공통점에 더 집중하여 억압당하고 꺾박받는 인간과 동식물 모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역설한다.

키워드: 심층생태론, 사회생태론, 아르네 네스, 머레이 북친, 인간중심주의, 어스 퍼스트

Abstract

Life, Ecology, and Anthropocentrism: A Review of Murray Bookchin's Criticism on Deep Ecology of Arne Naess

Tae-Hyeon Song (Ewha Womans University)

According to Arne Naess, the "shallow ecology movement" fights against pollution and resource depletion. Its central objective is, for the Norwegian philosopher, the health and affluence of people in the developed countries. Criticizing the anthropocentrism which is inherent in the traditional ecology, he advocates the "deep ecology". This new ecology calls for a shift from an anthropocentrism world view to an ecocentrism. As deep ecology grows, so do the counter attacks. The academic arena who is most critical of deep ecology is Murray Bookchin's social ecology.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main concept of deep ecology, 'biospherical egalitarianism', and the criticism of the social ecology community on it. In particular, I introduce the view of social ecology, which defines deep ecology as anti-humanism, and examine whether that argument should be persuasive or not. I followed Warwick Fox, defining the Bookchin's view as "the fallacy of misplaced misanthropy" and I want to prov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criticise the view of Arne Naess, a leading scholar of deep ecology, as misanthropy. However, while modern multinational companies are destroying the lives of the peoples of the Third World, I want to respect the Bookchin's view of social ecology which insists that the ecological crisis is caused more by sociopolitical factors than the world view as 'anthropocentrism'. At the same time, I emphasize that the ecologists should not focus more on the difference between ecologies and the criticism of one another ; instead, the ecologists should focus more on mutual similarities. By doing so, we can concentrate on caring for both human and animals & plants oppressed in the natural world.

Keywords: Deep Ecology, Social Ecology, Arne Naess,
Murray Bookchin, Anthropocentrism, Earth First

Received: 15 January 2018
Reviewed: 7 February 2018
Accepted: 14 February 2018